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한족

汉族

편자 고하홍

역자 리현숙 김계연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李贤淑, 金桂彦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汉族: 朝鲜文 / 高荷红编; 李贤淑, 金桂彦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67-3

I. ①汉… II. ①高… ②李… ③金… III. ①汉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1.1-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6029号

汉族

HAN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 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867-3

定 价: 18.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툽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한족의 개황과 력사

-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전설 /9
- 녀와가 사람을 만든 이야기 /11
- 녀와가 하늘을 기운 이야기 /13
- 염황자손의 유래 /15
- 창힐이 문자를 창제한 전설 /17

제2장 한족의 인생궤적

- 오독배두렁이에 관한 이야기 /23
- 장명등의 유래 /27

제3장 한족의 세시명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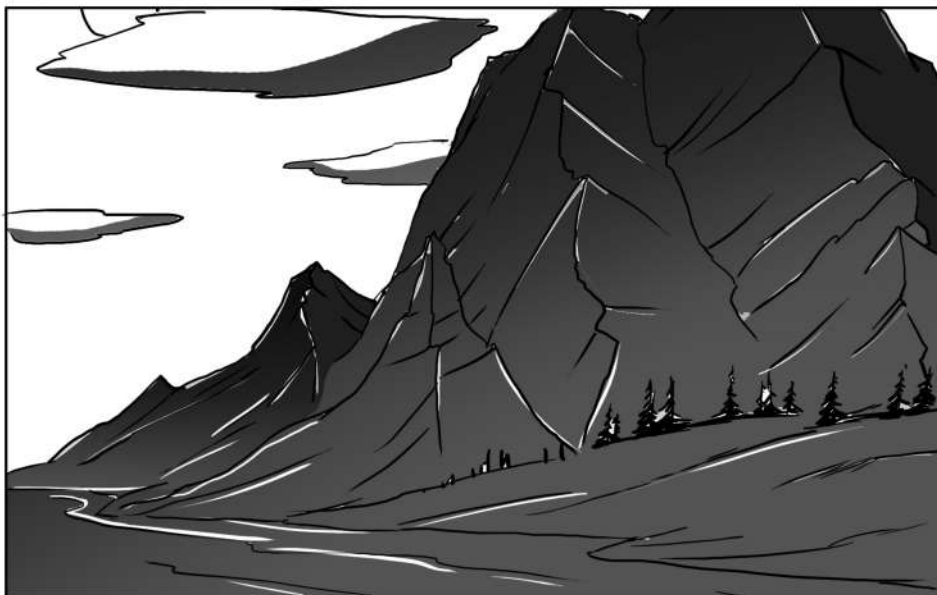
- 부뚜막신에 관한 전설 /29
- 설풍속의 유래 /33
- 세배돈에 관한 이야기 /35
- 정월 보름에 관한 이야기 /39
- 정월 보름에 꽃등구경하기의 유래 /43

2월 2일 명절의 유래 /45
단오절의 유래 /47
항아가 달나라로 날아간 전설 /49
오강이 계수나무를 찍는 전설 /53
중양절에 관한 전설 /57

제4장 한족의 민간이야기

견우와 직녀에 관한 전설 /61
백사전 /69
량축전설 /73
열두가지 띠에 관한 이야기 (1) /77
열두가지 띠에 관한 이야기 (2) /79

참고문헌



제1장 한족의 개항과 력사

한족은 중국의 주체민족으로서 고대의 화하족(华夏族)과 기타 민족이 오랜 기간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발전과정에서 또 끊임없이 여러 소수민족을 받아들여 강대해졌다. 한족은 중국 내륙과 중국의 항항, 오문, 대만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해외에도 많다. 한족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이다.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전국 내륙인구 총수는 약 13.39억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한족이 12.25억으로 91.51%를 차지한다.

한족을 왜 염황자손(炎黄子孙)이라고 하는가? 반고(盘古)가 천지를 개벽하고 녀와(女娲)가 하늘을 기웠다는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춘절(春节), 단오절, 추석의 유래를 알고있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세상에 아직 인류가 없었을 때, 천지는 혼돈하고 만물이 없었다고 한다. 하여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전설이 있게 되었다.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전설

천지가 개벽되기전에 우주는 혼돈한 기체덩어리로서 그안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반고는 거기서 생활하였다. 약 1만 8천년이 지나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가벼운 기체는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기체는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천천히 하늘은 매일 10척씩 높아가고 땅은 10척씩 두꺼워졌으며, 반고의 키도 매일 10척씩 커갔다. 이렇게 또 1만 8천년이 지나 하늘은 매우매우 높아졌고, 땅은 매우매우 두터워졌으며 반고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개가 범상치 않은 거인으로 자랐다.

또 몇해가 지나서 반고는 죽었다. 반고가 죽은후 그의 기는 바람과 구름으로 변하고, 소리는 세찬 천둥소리로 변했으며 왼쪽눈은 태양으로, 오른쪽눈은 달로 되고, 사지와 육신은 사극(四极)과 오악(五岳)으로, 혈액은 하천으로, 힘줄은 대지의 무늬로 변하였으며, 근육은 밭의 흙으로, 머리카락은 별들로 되었고, 피부와 털은 꽃과 풀과 나무로 변하였으며, 치아는 금속과 옥석으로 변하였고, 그의 땀은 비물로 되어 대지를 촉촉하게 하였다.



반고가 죽은후 하늘과 땅 사이에 남아있던 혼탁한 공기는 차츰 벌레와 물고기, 그리고 새와 짐승으로 변하여 쥐죽은듯 고요했던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그때는 땅위에 아직 인간이 없었다. 하여 녀신 녀와가 인류를 창조하였다.

녀와가 사람을 만든 이야기

녀와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거니느라니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벌레와 물고기, 그리고 새와 짐승 모두가 그녀를 알아주지 않아 그녀는 매우 쓸쓸하였다. 녀와는 못가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과 같은 생명체들을 만들면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줄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못가에서 흙을 파서 물로 반죽하여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빚기 시작하였다. 한참후 그녀는 자신의 모양과 비슷한 조그마한 물건을 빚었는데 귀, 눈, 입, 코, 혀가 있으며 두손과 두발도 있었다. 다 빚은후 땅에 놓으니, 조그마한 물건이 뜻밖에도 살아났다. 녀와는 너무 기뻐서 더 많이 빚었다. 녀와는 이 조그마한 물건들을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은 녀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녀와와 같은 말을 할수 있었다. 그들은 녀와의 주위에서 한바탕 환호하며 깡충깡충 뛰다가 차츰 사라졌다.

녀와는 세상을 흥성흥성하게 하기 위하여, 씩없이 사람을 빚었다. 그녀는 두손이 저리도록 힘들게 사람을 빚었지만, 만들어진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가득 차지 못하였다. 녀와가 손이 가는데로 넝쿨 한줄기를 꺾어 진흙탕에 넣어 흙탕물을 찍어 땅에 뿌렸다. 그랬더니 방울방울의 흙탕물이 모두 조그마한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손으로 빚은 사람과 모양이 비슷하였다. 이래서 대지에는 곳곳에 사람이 있게 되었다. 녀와는 인류를 창조하고나서 인류가 대대로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인류를 남자와녀자로 나누고 남자와녀자가 결혼하여 자손을 번영하게 하였다.

인류는 끊임없이 번식했는데, “하늘에는 예측할수 없는 풍운이 있다”고, 어느날 하늘은 공공(共工)에 의해 부딪쳐 무너지고말았다. 녀와는 인류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늘을 기웠는데, 이것이 녀와가 하늘을 기운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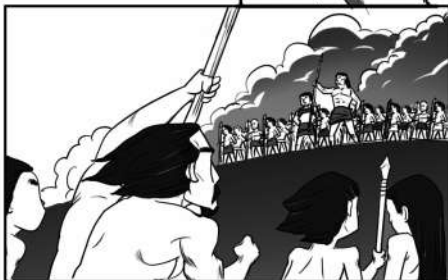
녀와가 하늘을 기운 이야기

수신(水神) 공공씨와 화신(火神) 축융(祝融)씨는 제위(帝位)를 쟁탈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공공이 축융에게 패배당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만 머리로 서쪽방향의 불주산(不周山)을 들이박아 하늘을 받치고있던 기둥이 부러지고말았다. 그리하여 하늘 반쪽이 무너져 하늘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대지는 흔들려 곳곳이 찢어져 하늘은 만물을 골고루 덮을수 없게 되었고 땅도 만물을 모두 담을수 없게 되었다. 갈라진 땅에서 내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사람들의 집과 농작물을 태워버렸고 거세찬 홍수는 거침없이 강의 량안을 흘러넘쳤으며 지하의 물길은 갈라진 틈사이로 뿜어나와 대지를 잠겨놓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살던 곳은 망망대해로 변해버렸다. 더욱 무서운것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산림에서 뛰쳐나와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흉악한 큰 새들이 하늘높이 맴돌면서 로인들과 약자를 쪼아먹었다.

이를 어쩔담? 녀와는 지금 급선무는 하늘을 기우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기운담? 녀와는 황하기슭에 가서 오색찬란한 돌들을 많이 골라 불로 녹인후 이 녹인 액체로 하늘의 구멍을 깎기 시작하였다. 녀와는 끊임없이 깎고 기워 아홉 주야만에 마침내 하늘을 기웠다. 드디어 해빛이 대지를 비추어 하늘가에는 오색 노을이 떠올랐다. 지금 비가 온후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그때 녀와가 오색 돌을 녹여서 만들어진것때문이다.

하늘을 기운후 녀와는 다시 동해로부터 큰 자라를 잡아와서 네발을 잘라 하늘의 네 모퉁이에 세워 하늘과 땅의 사방을 지탱하게 하였다. 뒤이어 소동을 일으킨 흑룡을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방금 자란 갈대를 태운 재로 홍수가 지나가면서 생겨난 골짜기들을 메꿨다. 이렇게 하여 천지는 태평하게 되었고 인류와 땅우의 기타 생령들은 또다시 평온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지진은 큰 자라가 힘이 들어 잠깐 휴식하는거라 한다.



한족은 융합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다. 한족은 스스로 “중화의 아들 딸” “화하의 아들 딸(华夏儿女)” 또는 “염황자손”이라고 자칭한다. 그러면 염황자손의 유래를 알고있는지?

염황자손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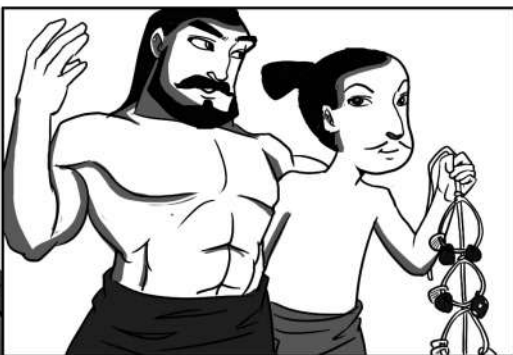
전하는 말에 의하면, 상고시대 황하류역에는 흩어져 살고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있었다. 그들은 친척관계로 씨족을 구성하고 많은 씨족들이 모여서 부락을 형성하였다. 황제(黃帝)와 염제(炎帝)는 그중 두개의 큰 부락의 두목이었다. 그 때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수재나 한재를 입으면 이사를 해야만 했다.

한번은 염제의 부락이 이사를 하다가 황제의 부락에 와보니 자연조건이 너무 좋아 거기서 장기간 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황제부락의 사람들은 내키지 않고 또 서로 양보하지 않아 결국 싸움이 일어났다.

세차례의 싸움끝에 염제의 부락이 패배하였고 염제는 황제에게 승복하고 황제의 명령에 따를것을 표명하였다. 하여 황제는 염제의 부락이 남아있기를 허락하였다. 황제의 안해는 염제부락의 사람들에게 몸소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일을 가르쳐주었다. 황제는 수레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염제도 쟁기와 약초를 황제에게 주었는데 그후부터 두 부락은 화목하게 지냈다.

그후 두 부락은 연합하여 염황부락련맹을 이루고 황제가 이 련맹의 수령이 되었다. 화하민족의 력사는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염황자손이란 호칭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화하족은 한조(汉朝)이후부터 한인(漢人), 한족(漢族)이라고 불리웠다. 황제의릉은 우리 나라 섬서성 황릉현의 송백이 우거진 어느 산에 있는데 매년 청명절이 되면 해내외의 염황자손들이 거기에 모여서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중의 하나인데 아직도 쓰이고있다. 한자는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과 나라통일, 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자는 창힐(仓颉)이 만들었다고 한다.

창힐이 문자를 창제한 전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창힐은 황제의 수하에서 벼슬을 하였다. 황제는 창힐에게 가축우리안의 짐승의 수량과 부락의 비축음식물의 많고적음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창힐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을뿐만아니라 무엇을 하든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하의 모든 짐승과 음식물을 상세히 료해하고 빈틈없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짐승과 음식물의 수량이 끊임없이 늘어나 머리로만 기억하는것은 무리였다. 당시는 문자가 없었으며 물론 종지와 필도 없었다. 어떻게 한담? 이는 창힐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창힐은 밤낮으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끈에 매듭을 지었는데 같지 않은 색깔의 끈으로 서로 다른 짐승과 음식물을 표시하고 끈으로 지은 매듭의 수로 각자의 수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방법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수량이 증가할 때 끈에 매듭을 짓기는 아주 쉬웠으나 수량이 감소될 때마다 매듭을 풀기가 골치거리였다. 창힐은 또 끈으로 동그라미를 묶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동그라미안에 여러가지 조개껍질을 걸어 그가 관할하는 물건들을 나타내었다. 수량이 늘어나면 조개껍질을 하나 보태고 줄어들면 꺼내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여러해동안 썼다.

황제는 창힐의 방법을 알고서 크게 칭찬한후 그에게 여러 부락으로 다니면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차츰차츰 이 방법은 널리 퍼졌다.